

하드웨어에 입각한 데이터베이스 현실 선보인 정보 전시장

최진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산업지원과 대리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DB/EXPO '96 전시회는 하드웨어에 입각한 데이터베이스의 현재와 향후를 각 업체들이 제품을 통해 선보인 놀이 한마당이였다.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편리한 방법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가를 보여주기 위해 참가 업체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엿볼 수 있었다. 전시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I. 개요

매년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DB/EXPO 전시회는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DB/EXPO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시회를 통해 향후의 기술과 현재의 제품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년도 DB/EXPO 전시회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126개 업체가 총 366개의 제품을 출품한 가운데 컨퍼런스와 제품 전시 등으로 진행돼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었다. 컨퍼런스는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넷과 인트라넷, 데이터 웨어하우징과 병렬컴퓨팅,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분야로 나뉘어 15일부터 진행됐다. 컨퍼런스는 4개 부문에 걸쳐 각 부문별로 소주제를 정해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소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분야별 소주제는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이언트 서버 분야로 클라이언트 서버 제품과 전략, 미들웨어와 분산 컴퓨팅,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 관리, 자료 수집과 분석 기술, 진보된 데이터베이스 등이었다.

인터넷과 인트라넷 분야는 월드와이드웹(WWW) 기술을 이용한 지역네트워크상에서의 개인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 월드와이드웹 기술을 이용한 공용 네트워크 접속 및 전자교역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 등이었다.

데이터 웨어하우징과 병렬 컴퓨팅 분야는 데이터 웨어하우징 개발, OLAP와 데이터 발굴,

병렬 컴퓨팅과 데이터 웨어하우스 경영 등이었으며, 애플리케이션 개발 분야는 클라이언트 서버 개발, 객체지향 기술에 입각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워크그룹과 그룹웨어 개발 등으로 소주제를 정했다.

II. 컨퍼런스

●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이언트 서버

- 클라이언트 서버 제품과 전략

첫째날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애플리케이션 개발 툴의 개관이 발표됐다. 둘째날에는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인터넷과 인트라넷, 기업 시스템의 재개발 등이 발표되었으며, 셋째날에는 기업 인트라넷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개발 툴과 아이비엠 클라이언트 서버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상태와 관리, 클라이언트 서버는 어디로 가는가 등이 발표됐다.

- 미들웨어와 분산 컴퓨팅

첫째날에는 데이터 응답 전략과 생산, 둘째날에는 분산 컴퓨팅 아키텍처상에서의 신뢰성 구축,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의 안정성 제공 방법, 사어버 브릭스로부터 확장 서버 구축 등이 발표됐으며, 셋째날에는 OSF의 DCE 1.2 개관, 분산 트랜잭션 관리자의 3층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 구축, ODBC와 OLE 데이터베이스 워크샵, OLE와 CORBA에 입각한 분산 객체 지향 컴퓨팅, 기업 데이터를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접속할 수 있는 확장된 클라이언트 서버, 미들웨어에 입각한 분산 애플리케이션, 필요, 선택, 전략과 의견 등이 필요한 분산 오브젝트의 길 등이 발표됐다.

-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 관리

셋째날에는 분산 시스템 관리의 선택, 빠른 출



▲DB/EXPO '96 전시회가 열린 모스콘센터 전경



▲사이베이스/파워소프트 부스에서 관람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엔지니어 모습



▲솔루션을 출품한 중소 규모의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다.

력을 얻는 문제가 발표됐고 넷째날에는 카오스 이론 또는 디자인에 의한 분산 데이터 관리와, 네트워크 통합,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관리,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계, 애플리케이션 관리의 다음 명령 등이 발표됐다. 마지막날에는 확장된 클라이언트 서버 애플리케이션의 출력이 발표됐다.

- 자료 수집과 분석 기술

둘째날에는 워크로우의 모든 것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의 텍스트 확장 시도가 발표됐고, 셋째날에는 이동 컴퓨팅의 전략과, 현대적인 데이터베이스 기술 등이, 넷째날에는 객체 관계형 클라이언트 서버 솔루션 모델의 이해, 기업에서의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비용절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과 성능향상 등이 발표됐다. 마지막날에는 객체지향 기술이 발표됐다.

●인터넷과 인트라넷

- 서버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

둘째날에 비즈니스를 위한 인터넷과 인트라넷,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클라이언트 서버, 기업 인트라넷에서의 공용 및 분산 정보를 위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이용 등이 발표됐고, 셋째날에는 전자 상거래와 데이터베이스 관계와 기업 인트라넷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개발 툴, 네트워크 컴퓨터는 윈도우 95 이후를 의미하는가, IT 부서에서의 웹 개발 등이 발표됐다.

●데이터 웨어하우징과 병렬컴퓨팅

- 데이터 웨어하우징 개발

첫째날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프로젝트 설계와 올바른 데이터 웨어하우스 요소와 제품 선택



▲프로그레스는 프로그레스 ADE와 프로그레스 RDBMS를 출품했다.



▲컴퓨터월드드는 자사의 인터넷 주소를 통한 기사서비스를 시연해 볼 수 있게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SQL서버 6.5, 액세스, 비주얼폭스프로 등을 다양하게 선보이는 한편 관람객들이 직접 인터넷을 시연해 볼 수 있게 했다.

이 발표됐고, 둘째날에는 성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한 데이터 품질의 개발과 이용 등이, 셋째날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한 정보 모델링,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발전과정,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설계 등이 발표됐다.

- OLAP와 데이터 발굴

둘째날에는 효과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 올바른 OLAP 툴 선택 등이 발표됐고, 셋째날에는 실질적인 OLAP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멀티 요소, 데이터 유지 기술의 취합 등이 발표됐고, 넷째날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성공적인 전개속에서의 사용자 규칙, 사용자 접속 툴을 위한 실질적인 요구, 정보 디렉토리의 규약, 즉각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등이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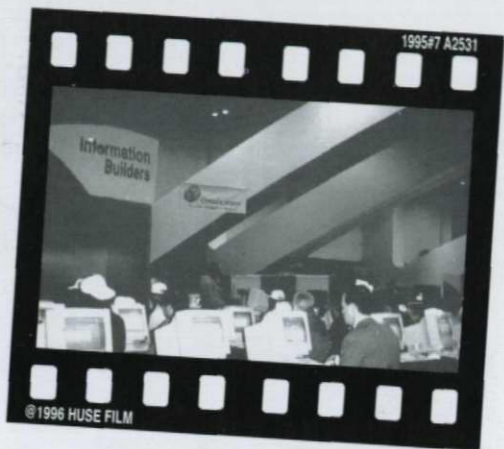
● 애플리케이션 개발

- 클라이언트 서버 개발

첫째날에는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GUI 설계와 사용성이 발표됐고 둘째날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의 분석과 설계가, 셋째날에는 분산컴퓨팅을 위한 효과적인 개발 기술, 객체와 클라이언트 서버, 비주얼 프로그래밍 산물 시스템 등이 발표됐다. 넷째날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을 위한 시험 방법, 부분별 애플리케이션 등이 각각 발표됐다.

- 객체지향 기술에 입각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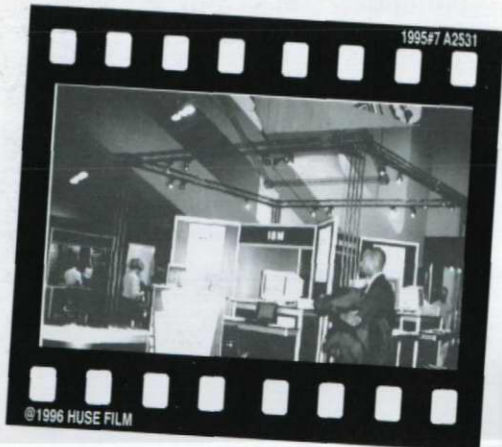
첫째날에는 객체지향 안내, 객체와 실체를 위한 모델링 등이 발표됐고, 둘째날과 셋째날에는 복잡성이 없는 객체지향 모든 이익, 클라이언트 기술의 객체지향 개발을 위한 방법, 메인프레임에서의 객체,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객체 프레임 워크 등이 발표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SQL서버 6.5, 액세스, 비주얼폭스프로 등을 다양하게 선보이는 한편 관람객들이 직접 인터넷을 시연해 볼 수 있게 했다.



▲전시장에 매달려 있는 비행선은 개발사인 맥직을 선전하는데 한몫을 했다.



▲아이비엠은 부스내에 웹센터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했다.

III. 출품업체 현황

126개 업체가 366개의 제품을 전시한 전시장은 관람객의 시선을 모은 것이 인터넷 빌리지와 사이베이스와 파워소프트의 파트너 및 아이비엠, 휴렛팩커드 등의 대형 업체들 파트너가 공동으로 함께 구성한 대형 부스들이었다. 그리고 미들웨어 부스도 많은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참가 업체 가운데 주요 업체별 제품을 보면 불사의 경우 분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캔들사는 분산시스템을 위한 캔들 커맨드 센터와 네트워크, 오라클, 사이베이스, 유닉스, 윈도 NT 등 각각의 시스템 상에서 운용되는 오메가몬 모니터링 에이전트, 아이비엠의 DB2에서 사용되는 DB/DASD, DB/SMU, DB/익스플레인, DB/퀵체인지, DB/퀵컴퍼어, DB/웍벤치 등을 선보였다.

컴퓨터어쏘시에이트社は CA-오픈 인그레스와 CA-유니센터, 컴퓨터어 코퍼레이션社は 에코DBA와 에코넷, 에코툴, 유니페이스 등을 각각 출품했다. 크리스탈社は 크리스탈 인포와 크리스탈 리포트를 선보였다.

엠프레스 소프트웨어社は 엠프레스 4GL과 엠프레스 컨넥티비티, 엠프레스 DB서버, 엠프레스 리포트라이터, 엠프레스 GUI 빌더, 엠프레스 하이퍼미디어, 엠프레스 RDBMS 등을 선보였다. 후지쯔 오픈 시스템 솔루션社は 인텔리전트 Pad와 ODB-II를, 휴렛팩커드사는 오픈웨어 하우스를 출품했다.

아이비엠社は 데이터 마이닝과 로터스 노츠, 로터스 어프로치, 팀 컨넥션, C++과 코볼, 스몰톡 등을 위한 비주얼에이지, 비주얼 잼, 비주얼 웨어하우스 등을 전시했으며, 인포믹스社は 인포믹스 뉴에라, 인포믹스 온라인 다이내믹 서버 등을, 인터솔브社は 인터솔브 데이터다이렉트와 인터솔브 픽스를 선보였다.

매직소프트웨어社は 매직을 선보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社は 액세스,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폭스프로, 비주얼 C++, SQL 서버 등을, NCR 사는 자사의 컨설팅 서비스와 유닉스 환경을 위한 테라데이터 DBS, 월드마켓 서비스 등을 각각 출품했다.

노벨社は 오라클을 운용시킨 넷웨어 4.1 SMP와 텍시도, 애플리케이션 매니저/NPS 등을, 오라클社は 디자이너/2000, 디벨로퍼/2000,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오라클 게이트웨이, 오라클 인터오피스, 오라클 모뎀 에이전트, 오라클 서비스, 오라클 유니버설 데이터베이스, 오파클 웹 시스템, 오라클 워크숍 서버 등을 선보였다.

파워소프트/사이베이스는 파워빌더, SQL 애니웨어, S-디자이너 등을 선보였고,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레스 ADE와 프로그레스 RDBMS를, 피라미드 테크놀로지사는 스마트 트랜잭션과 스마트 웨어하우스를 선보였다.

SAS社は 새스시스템을 선보였으며, 센트리 퍼블리싱사는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과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매거진을 출품했다.

실리콘그래픽스社は 미네셋과 퍼포먼스 Co-Pilot을, 소프트웨어 AG社は 에스퍼런트와 DSS 에이전트를, 썬소프트社は 썬 디시즌 OLAP를, 탠덤 컴퓨터사는 dba/m과 논스톱 SQL/MP, ODBC, 오라클 등을 출품했다.

틈스 소프트웨어 프로덕트사는 이그제큐티브 노매드와 프론트 앤 센터, 노매드 ODB 서버, RP서버 등을 출품했으며, 유니데이터사는 코볼 DC, 오브젝트 쿨, ODBC, 오픈 클라이언트, SB 클라이언트, SB 데스크 탑, 윈도우 환경을 위한 SB+, SB+ 서버, UDMS, 유니데이터 RDBMS, 유니서버 등을 각각 출품했다. 